

“나는 오늘도 폐지를 줍습니다.”

- 딸 때문에 가슴 아픈 차숙자(가명) 어르신 이야기 -

차숙자(가명)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성한 딸은 반듯한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고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단란한 가정을 일군 딸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위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딸은 먹고살기 위해 이일저일 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딸이 당신 팔자를 닮은 것 같아 늘 죄인같은 심정입니다.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힘들지만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우느라 전전긍긍하는 딸을 보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딸을 돕고 싶은 마음에 매일같이 밖에 나가 폐지를 줍고 계십니다.

이 가족들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차숙자 어르신이 생계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